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 도입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4.07.22 16:28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은 내부 임직원의 비리나 부패행위 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인 '헬프라인'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헬프라인은 외부 위탁 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보접수가 이뤄진다.

이에 제보자의 IP 추적 방지와 로그 파일 자동 삭제, 내용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돼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제보는 회원가입이나 실명인증 필요 없이 공단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및 QR코드를 통해 공단 직원은 물론 공단 시설 사용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부패행위와 부당 지시, 인권침해, 갑질, 성희롱, 개선 건의 등이다.

다만 근거 없는 특정인 비방과 일반민원, 기타 공단운영과 무관한 내용은 제외된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윤리경영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기반 마련으로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